

세대 간 직업계층 상속성과 직업계층 안정성 관계 연구

임 창 규*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이동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의 증가가 세대 간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분명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대의 영향이 직업을 얻고 난 후 이 직업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이 일치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는 차이가 있었고 계층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직업계층이 일치한 중상계층과 전통적 직업계층은 첫 직업계층 유지기간이 길고 직업이 동떨어지는 적었다. 반면에 하류계층의 경우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을 계승했을 때 직업계층 유지 기간이 짧으며 이동횟수는 많았다.

1. 서론

사회이동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부, 사회적 기회 및 특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 사회가 어느 정도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를 통하여 사회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사회의 기회구조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이동은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불평등은 사회이동의 수직적 이동과 관련되어 사회구성원들이 몇몇 구분할 수 있는 집단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집단이 공고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안에서 특정집단이 형성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과정은 사회이동을 통해 관찰되며, 결국 사회이동은 사회불평등의 구조화를 알아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서구사회의 예를 통하여 산업화된 나라가 되면 사회이동은 이동율이 증가하고(Lipset & Bendix, 1967) 이동의 기회는 보다 평등하게 되어 성취적 요인이 지배적이 되어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개방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과거의 수직이동의 장애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장애물로 대체되어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는 남아 있게 된다(Sorokin, 1959).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전 연구에서 이미 한국사회가 높은 사회이동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급속한 변화를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사회이동만으로 개방적인 사회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동에는 한국사회가 경험한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뒤이어 정보화를 이루어 직업구조의 변화, 전문화에 따라 새로운 생산활동의 창출로 인한 구조적 이동이 심하였다. 즉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에 놓여 있는 사회의 사회이동에는 사회의 개방성 또는 폐쇄성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구조적 이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J. Passtore, 1982). 이외에도 사회이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각 위계서열의 지위 안에서 이동의 가능성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크로스키와 하우스(Grusky & Hauser, 1984)의 연구에 의하면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계급의 경계의 반투성이 강화되며 장거리 이동의 확률이 낮아 사회적 거리에는 경사가 있어서 멀리 갈수록 경사가 급해져서 멀리 이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각 계층의 상속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의미이며 이동은 유의미한 장거리 이동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짧은 이동에 의한 사회이동을 차지한다. 더욱이 계층의 서열에서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불이동(immobility)이 가장 크며 계층위계의 극단과 이행지역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폐쇄되어 장거리 이동의 가능성을 낮게 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높은 사회이동이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회구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여전히 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불평등 구조는 불평등의 정도와 불평등의 차원 등으로 각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회 안에서 사회적 불평등 요인들은 사회구성원의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불평등은 집단과 개인의 태도, 행동, 가치관, 생활기회와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차이를 야기한다. 부와 권력 그리고 지위와 명예 등이 사람마다 다르게 분포되는 현상은 쉽게 관찰된다. 불균등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특정 시공간의 사회를 계층화한다. 사회계층이 시공간을 따라 변화되는 현상은 사회이동으로 관찰되며, 특정 사회의 계층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기준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한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히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은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플라톤 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층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indicator)는 직업이었고 사회적 삶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직업적 계급이 사람들의 믿음, 신념, 가치, 규범, 관습, 감정표현을 구분하는 가장 주된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Lipset & Zetterberg, 1966)

직업구조에서 사회적 지위는 직업적 지위가 바뀌면서 달라지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위계적 구성은 단면적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시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계에서의 자리를 옮길 수 없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하게 되며, 결국 정체감의 차이가 고착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강화된다. 반대로 자신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계상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어 진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는 매우 낮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구조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이동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으며 이동률의 증가는 사회적 집단 안에서의 개인의 연대성을 약화시키

고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빈번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직업집단으로 강하게 얽혀있으며 그것들이 균열되어 직업들의 경계는 불확실하며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간의 이동은 대부분 동질적 직업 간의 이동이며 반면에 직업 간의 이질성이 크면 이동성은 낮아진다. 또한 비숙련과 반숙련 노동자들은 이해, 습관, 전통, 이데올로기가 비슷하며 전문가 집단과 경영자집단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동성향에 차이가 있으며 직업적 상속은 여전히 존속하며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이동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의 증가가 세대 간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분명한 영향력을 갖는지는 계층과 불평등문제의 주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세대 간의 이동이 전 계층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지 혹은 사회이동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얼마만큼의 이동량을 가지는지, 그리고 만약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전 세대의 영향이 직업을 얻고 난 후 이 직업이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떤 영향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흥미로운 연구일 것이다.

한편, 이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개발, 직업자긍심, 임금수준을 주요한 변수로 한 경제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고 직업획득 이전의 경제외적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직업의 지위획득과 이후 직업지위의 유지를 연결하여 지위획득의 영향들이 이후 직업유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불평등의 영향력이 현재의 실증적 연구결과보다 커질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II. 선행이론 및 이론적 배경

1. 가족과 지위세습

사회계층은 각 개인의 삶의 기회,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가족의 구체적 특성도 달리 나타나며, 사회불평등구조는 가족을 매개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서는 사회의 기회구조는 등가의 원칙에 기초한 경제적 교환구조와 권위, 권력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교환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Toennis, 1887; Blau, 1964). 이는 한 사회의 본질을 재화의 생산과 분배과정으로 볼 때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보상은 자유시장에 근거한 이론에서처럼 순수한 경제적 교환과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환과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분배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것이다(Curtis, 1986; Goldman & Tickamyer, 1984; Lenski, 1966, Weber, 1947).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권위와 권력이라는 사회적 교환과정에 영향을 받는 최초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애관점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출생해서 자라난 가족의 경제사

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은 사회적 지위 성취과정에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면서 동시에 한계로서, 사회적 불평등구조의 생산과 재생산과정 연구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자리잡고 있다(Hauser, Sheridan & Warren, 1998). 특히 가족배경은 부모-자식이 공유하는 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자원과 관계를 총칭하게 되며, 가족배경은 사회계층화 연구에서 핵심주제인 세대 간 불평등의 재생산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어왔다(Smith & Graham, 1995).

가족의 경제적 자원에서의 불평등은 부의 직접적 세습 혹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하여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상당수 있다(Blau & Duncan, 1967; Bowles & Gintis, 1976; Featherman & Hauser, 1978; Jencks et al., 1979).

사회적 지위획득과 계층화 분야의 연구에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기회'와 개인이 획득하는 '교육수준'은 성장, 학교교육,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었다(Blau & Dunan, 1967; Collins, 1979; Jencks et al., 1979).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과정에서 성장환경이 출발점(origin)을, 직업적 지위획득과 성공이 목표점(destination)을 이룬다면 교육적 기회와 성취는 둘 사이를 매개하거나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을 한 단계 걸러 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Hallinan, 1988).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가족배경이 교육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이 상층의 계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수준이 높은 좋은 직업으로의 취업이 대학학력의 취득 여부와 진학한 대학의 사회적 서열에 의해 점차 차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Featherman & Hauser, 1978; Kerbo, 1983). 가족과 교육불평등을 주제로 한 연구로서 대학교육 진학여부를 결정하는데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차등화 효과연구(방하남·김기현, 2002, 2003; 장상수, 2000)가 있으며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위치에 따라 대학진학확률과 진학대학의 종류(일반대학, 전문대)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연구도 있다(방하남·김기현, 2002). 이러한 가족 배경에 따른 진학의 상이함(중상층자녀들은 인문계열로 진학하는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녀들은 실업계로 배치되는)은 중등교육수준에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이세용, 1986; 이견만, 1994).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가족배경이 지위세습에 미치는 연구로서 방하남·김기현은 블라우와 던컨의 경로모형을 이용하여 가족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신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자녀에게 세습되는지 알아보았다. 부친의 교육 및 직업지위는 자녀의 교육 및 직업지위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부친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직업지위 간의 관련성은 매우 컸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결과 부친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적 지위로 직접 세습되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어느 사회나 특권적 위치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

하며, 사회경제적 자원동원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 경향이 있다(Parkin, 1971).

2. 계층이동과 사회적 장애물

소로킨(Sorokin, 1959)은 과거사회에 비해서 현대사회에서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원한 역사적 경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상승이동시에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증가 형태를 띠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과거의 수직이동의 장애물이 제거될지라도 다른 장애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동의 증가에 회의적이었다.

직업에 있어서도 현대의 직업집단들은 서로 강하게 얽혀 있지만 그 집단안의 균열이 지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들의 경계는 불확실하여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직업과 아들직업이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져서 계층 간의 구분이 없어져 버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직업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하더라도 의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 개인은 이해, 습관, 전통, 이데올로기가 비슷하고 이질적인 집단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으로 사회적 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직업의 이동에 있어서 대부분 직업 간의 이동은 유사한 직업 간의 이동이며 직업 간의 이질성이 크면 이동성은 낮아지므로 확률적으로 낮으며 실제로 완전히 무작위적인 이동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층의 구분은 계속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페더맨과 하우스(Featherman & Hauser, 1978)는 그들의 세대간 직업이동연구를 통해서 중간계층의 직업상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직업 이동표를 통하여 상위비육체노동자와 농민의 직업상속이 강하며 이에 비해 하위육체노동자, 상위육체노동자의 이동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직업서열에서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의 불이동이 가장 크며 직업위계의 극단과 이행지역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폐쇄되어있다. 또한 이행지역의 경계들이 폐쇄적 성격을 가지면 장거리 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각 계층에 따라서 상속 강도의 차이가 크다고 보았다.

그들은 직업계층 간 세습이나 이동가능성의 차이를 주로 경제적 자원에 기인하여 설명하였다. 화이트칼라 지위 상속을 강화시키는 바람으로서 화이트칼라 아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블루칼라계층의 아들은 그들의 아버지 계층과 그들을 결합시키는 경제적 자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계층이 가지는 이동에 대한 열망 상속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블루칼라 출신의 아들의 이동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농민계층은 블루칼라와는 대조적으로 토지와 같은 경제적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속에 대한 선호와 매우 강한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계층의 상속성¹⁾은 화이트칼라보다 더 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임금과 사회이동을 동시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Gottschalk, 1997)에서 임금상승으로

1) 상속성(Inheritance)은 아버지의 직업계층 속성이 계승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사회이동은 단기간 동안 관찰되고 이것이 매년 누적되어 계속되면 많은 양의 사회이동이 관찰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분석결과는 예상외로 적게 나왔다.

그는 1975-6년과 1974-1991년 임금 5분위 퍼센타일 이동표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1974년 가장 낮은 5분위에서 다음 년도에도 하위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의 확률의 합은 90.8%로서 이동확률은 높은 편이었다. 17년이 지난 후 이동률에 있어서 하위분포에서 올라갈 확률은 일반적으로 높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나도 가장 낮은 5분위에 머물 확률은 매우 높았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상승이동 후 다시 원래자리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각 이동이 17년 동안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5분위의 다음 칸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기존연구결과는 직업이동 결과 직업이동에 있어서 방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위계체계에서 중간계층인 하위비노동직과 노동직 출신에게 하향이동 또는 동일이동이 많이 발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첫 일자리 획득과 노동이동

첫 일자리에 관계되는 논문은 대체로 연령을 제한하여 청소년층을 조사한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졸업 후 노동이행과 이후 노동이동을 연구한 것들이다. 기존의 국내연구로서 양심영(2000)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미취업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취업형태를 구분하여 고졸 청년층 취업형태의 상황과 청년층 근로자의 정착과정과 양상 살펴보았다. 그는 취업이 늦어질수록 미취업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지며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와 취업안정성을 중시하는 취업자일수록 정규직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최경수(1999)는 노동시장 정착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이 이후의 직장정착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최초 취업시와 졸업 후 5년 이후 시점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노동이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노동시장 최초 진입과정에 대한 연구로 이병희(2001)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및 경력형성 과정 분석이 있다.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층 노동력의 미취업에 따른 유희인력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안주엽·홍서연(2002)은 한국노동패널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했다. 미취업상태가 경과할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며 학력수준의 탈출확률에 대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첫 일자리에 있어서는 이행 기간이 장기적이고 이행 기간(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취업으로의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음의기간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을 가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이동 및 성과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주엽·박성재(2003)의 직

업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연구가 있다. 청년패널을 사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과 취업확률, 임금 및 노동시장 이행기간을 산출하였다. 또한 김성환·최마을(2003)은 수도권과 지방대 졸업생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임금)를 분석하였다. 김준영·전용석(2003)은 청년층의 직장이동연구를 통해서 이동횟수와 임금 간에는 뚜렷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직장이동에서 첫 일자리의 특성이 임금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직장이동패턴은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작은 사업체로, 그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경험이나 빈번한 직장이동이 경력개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고용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김주일(2001), 한준·장지연(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든 계층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요인, 비정규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김주일(2001)은 노동수요적인 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로 비정규직 고용을 지정하였으며 비정규직을 고용여부, 고용비중, 비중의 증가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각각 그 영향요인이 다름을 파악하였다. 비정규직 고용여부는 기업전략, 교육훈련, 조직설계, 조직연령 등에 영향을 받지만, 비정규직의 고용비중은 원가우위전략과 기업의 조직재설계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비정규직고용을 과거보다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노동조합의 유무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장지연(2000)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상태인가,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이 한번 시작하면 정규직으로 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고용형태인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으로 개인의 근로생애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 고용이 차지하는 전형적인 위치는 정규직 근로를 하다가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며, 전체근로생애를 통하여 일관되게 지속되는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와 고용질적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한 남재량·김태기(2001)는 Markov이행확률 모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취업자들의 고용의 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얻는 가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한번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면 쉽게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굴레가 되어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이병희(2002)는 한국노동패널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첫 일자리의 이행과정이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여 획득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직장이동은 임금상승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경험의 누적은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분석자료 및 계층분류

1. 분석자료

분석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에 시작하여 10차례에 걸쳐 조사된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동패널자료는 고용구조특별조사의 2,500여 조사구 중에서 1,000개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전국의 5,000가구를 선정하여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longitudinal survey)로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노동패널자료의 구성은 가구자료, 개인자료와 신규자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외 각 년도 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생성되는 부가조사자료와 개인의 직업이력이 조사되는 직업력자료가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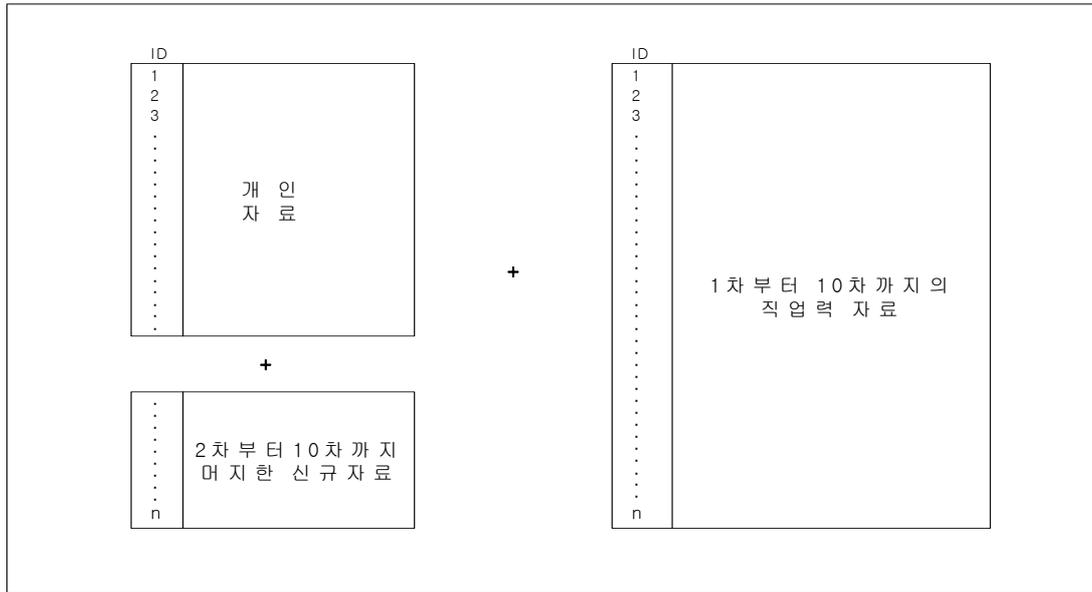
분석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신규자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한다. 신규자료는 개인용자료의 모든 내용을 반영한다. 단 신규용 자료는 처음 조사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회 조사에 포함되지만 이후 조사에서 더 이상 필요하기 않아 생략된 내용이 추가된다. 이러한 자료에는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부모님의 학력, 만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혼인력과 출산력 등이다. 본 조사에서는 만 14세 무렵의 아버지의 교육 및 계층관련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년도 신규자료를 시작으로 10차까지 개인 자료에 머지(merge)했다.

다음으로 노동패널의 주된 분석 부분으로서 기본이 되는 자료는 직업력자료이다. 각 년도의 패널조사자료의 대부분의 자료가 직업력자료에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력 자료를 사용했다.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을 기술한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와 1차 조사 이후로 조사된 개인의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직업력 자료를 통해 개인이 최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가구용 자료가 한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개인용 자료가 한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면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직업을 자료 구성의 기본 단위로 한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 조사의 유형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며 개인 자료의 주된 일자리 정보 또한 직업력 자료에 포함된다. 직업력 자료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는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을 포함한다.

자료 구조론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력 자료는 1차부터 현재조사 시점까지의 개인의 직업이력을 모두 포함하며, 한 개의 레코드가 개인의 한 개의 직업이력을 나타내고 있어서 자료구조 내에 여러 개의 개인 직업이력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자료에서는 조사 차수 만큼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차수의 자료구조 내에서 한 개의 개인직업이력 레코드만 허용되지만 직업력 자료는 오직 하나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구조 내에서 여러 개의 개인 직업이력들을 가질 수 있게 허용된다.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를 머지(merge)한 전체 분석자료를 직업력자료와 다시 머지(merge)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할 자료를 만들었다. 최종자료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최종분석자료의 구조



2. 계층분류

사회이동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계층 또는 계급분류가 필요하다. 계층과 계급의 개념을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계층·계급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용어사용은 매우 혼란되게 사용되어왔다.(양춘, 2002) 어떤 경우에는 계급과 계층개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반면 계급과 계층이 이질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맑스주의자와 베버주의자 사이에도 각기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신광영, 1990).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어왔지만 그 견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계층이 모든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포함한다고 보고 계급현상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계층과 계급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둘째는 계층과 계급이 명백히 다른 것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계층은 주로 분배과정에서 생긴 개인 간의 차이를 말하며 계급은 생산과정에서 생겨나는 보다 근본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다. 셋째는 계층과 계급이 차이를 있지만 서로 간에 중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계급에 있어서 계층과 같이 물질적 자원이나 권력의 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며 분배과정에서 계층이 계급과 비슷한 성격의 갈등집단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계급이론이나 계층이론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²⁾.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사이에는 인식론적이며 방법

2) 이에 대해 계층과 계급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계층이라는 용어로 통일 하여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두 현상은 별개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계층과 계급의 원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홍두승·구해근, 2004).

노동패널은 조사대상을 임금근로자, 비임금자(자기사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로 분류하였다. 계층을 만들기 위한 임금근로자의 변수는 업종, 일의종류, 직명/직위, 기업형태,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가 있으며 비임금자의 변수에는 업종, 일의종류, 피고용자 유무(사업체규모), 사업체대표 본인여부가 있다. 또한 미취업자는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이전에 직업을 가진 적이 있으며 조만간 재취업을 가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계층분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미취업자의 계층구성 변수는 이전업종, 이전일의종류, 이전직위, 이전사업체형태, 이전사업체규모, 이전종사상지위를 선택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조사대상자가 만15세때의 직업이며 계층을 만들기 위한 변수로서 업종, 일의 종류, 직위, 종사상지위가 있다.

계층범주화를 하기 위해서 골드소프와 라이트의 계층분류를 이용을 고려하였다. 장상수(2001)는 골드소프와 라이트의 계층모형의 분류방법을 각각 생활조건으로서의 계층개념과 착취적 계층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골드소프의 모형은 생활조건으로서의 계층개념(life conditions concept of class)으로 인구집단을 식별 가능한 몇 가지 경계로 구분하여 이 경계의 구분선에 따라 물질적 조건과 인구학적·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을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라이트의 모형은 착취적 계층개념(exploitation concept of class)으로 계층을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갈등집단으로 파악한다.

두 가지 모형을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이론적인 적합성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이 타당한 모형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라이트의 모형과 골드소프의 모형을 병행 사용³⁾하였다.

직업력자료를 머지한 최종자료에서 피조사자 직업의 산업, 종사상지위, 직업변수를 이용하여 계층변수를 생성했다. 표준산업분류표를 이용하여 농촌과 비농촌으로 산업을 리코드했다. 종사상지위변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업원있는 고용주, 종업원없는 자영업자로 리코드했다. 마지막으로 직업은 통계청의 신직업분류표를 이용하여 전문가, 준전문가, 농업노동자, 산업노동자로 리코드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각각의 계층관련 변수를 결합하여 7가지 범주의 계층변수⁴⁾를 생성하였다. 아래의 표는 계층변수 생성을 위한 기준 표이다.

3) 기존에 계층모델로서 사용되었던 방하남(1996)의 계층범주화를 참고하였다.

4) 7가지로 범주화 했지만 현재의 적합한 계층범주화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농업노동자 범주는 더 이상 의미 있지 않지만 과거 산업화 이전의 아버지의 계층분류에는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표 1> 계층범주화 분류 기준

계층	분류 기준
자본가	산업 : 농림업외 전체 종사상지위 : 종업원있는 고용주
전문경영	산업 : 농림업외 전체 종사상지위 : 정규직, 비정규직 직업 : 각종 전문가
준전문가	산업 : 농림업외 전체 종사상지위 : 정규직, 비정규직 직업 : 각종 전문가
도시뿌띠	산업 : 농림업외 전체 종사상지위 :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산업노동자	산업 : 농림업외 전체 종사상지위 : 정규직, 비정규직 직업 : 기능근로자 및 단순노동자
농촌뿌띠	산업 : 농림업 종사상지위 : 종업원없는 자영업자, 종업원있는 고용주
농업노동자	산업 : 농림업 종사상지위 : 정규직, 비정규직

- 주) 1) 생산수단의 소유여하는 종사상지위변수를 이용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을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계층으로 분류하고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피고용인을 고용한 자를 자본가라고하며 자기를 고용한 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도시뿌띠로 분류. 농촌의 경우 농촌뿌띠는 소작농을 제외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촌뿌띠로 분류.
- 2) 전문기술은 직업분류를 이용하여 전문기술 유무를 판별함.
- 3) 부문은 산업분류를 이용하여 농어업 분류를 농촌부문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비농촌부문으로 분류함.

3. 연구가설

앞장의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다른 직업계층을 얻은 사람은 첫 번째 직업계층의 안정성(stability)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계층을 얻은 사람은 쉽게 이직할 것이다. 또한 직업계층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층이동의 횟수도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각 직업계층 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상류층과 하층 간의 직업의 상속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전통적인 성격의 직업계층과도 다를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성격의 직업계층과 하층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각 계층에 따라 가설을 나누어서 세워보았다.

가설 :

- I. 아버지의 직업계층의 계승여부에 따라 직업계층 유지기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중상류계층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동일하면 직업계층 유지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 1-2. 하류계층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동일하면 직업계층 유지기간이 짧을 것이다.
 - 1-3. 전통적인 성격의 직업계층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동일하면 계층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 II. 아버지의 직업계층 계승의 영향이 계층이동 횟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1. 중상류계층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동일하면 계층 이동이 적을 것이다.
 - 2-2. 하류계층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동일하면 계층 이동이 많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첫 직업계층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고려한 계층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분석모형은 이산형 해저드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이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현상은 이러한 특성을 찾기 힘들어 적합한 적용이 어렵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예측변수(time-varying predictor)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시계열적 자료에 적용이 힘들다. 또한 자료수집기간 동안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이산형 생존모형은 기존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콕스모형(Cox hazard model)에 비해 기준선 해저드(baseline hazard)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축과 관련해 충분한 수의 더미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아들의 직업계층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직업계층 하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일치하는 직업계층과 불일치하는 직업계층, 그리고 아버지 직업계층외의 모든 직업계층으로 나누어서 이산형 해저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이산형 해저드모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i 는 개인 그리고 j 는 취업 기간을 표시).

$$\log\left(\frac{h(t_{ij})}{1-h(t_{ij})}\right) = [\alpha_1 D_{1ij} + \alpha_2 D_{2ij} + \dots + \alpha_J D_{Jij}] + [\beta_1 X_{1ij} + \beta_2 X_{2ij} + \dots + \beta_P X_{Pij}].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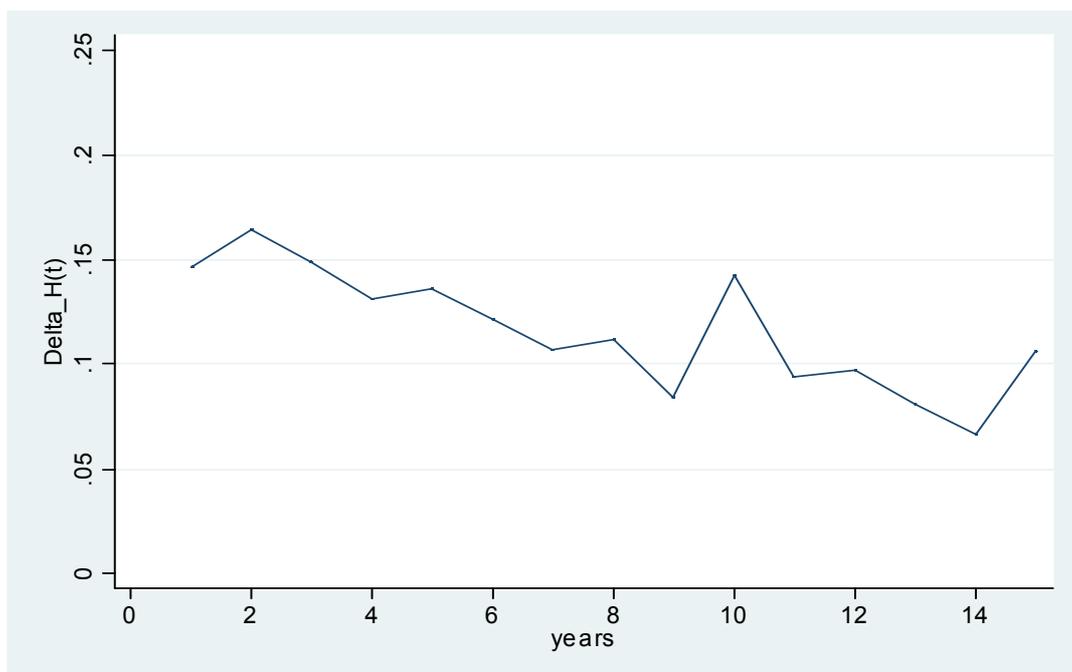
방정식 (1)에서 미취업 기간을 표시하는 더미변수들(D)의 계수들(α)은 복합 상수항(multiple intercepts)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집합적으로 이러한 계수들은 기준선 로짓 해저

드 함수를 나타낸다(모든 예측변인들의 값이 영(0)일 때의 로짓 헤저드 값). 방정식 (1)에서 표현되었듯이 링크함수(link function)와 관련해서 로짓 링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준선 헤저드의 형태와 관련하여 취업 기간을 표시하는 모든 시간더미를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신 시간더미를 그룹화하였다. 또한 연단위로 측정된 모든 취업 시간더미를 사용하여 기준선 헤저드의 형태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으며 취업 기간과 관련하여 10개의 시간더미를 만들었다.

<표 2>는 첫 직업을 얻은 후 퇴직까지의 취업기간(년단위)을 기술하는 생명표이다. 첫 직업을 얻은 3454명 중에서 176명은 첫 취업 후 1년 도달 이전에 퇴직하였으며 이들을 제외한 3278명이 다음 퇴직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도달한 3278명 중에서 481명이 2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다. 전체적으로 1년 도달 전의 헤저드확률이 낮은 편이지만 1년 이후부터 1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높고, 11년 이후에는 헤저드 확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2>은 헤저드 확률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시간에 따른 헤저드의 변화가 선형적인 형태라면 시간 자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시간에 따른 헤저드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감의 변화가 뚜렷한 구간을 시간 더미(temporal dummy)로 만들어 취업기간에 따른 시간의 변동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다음의 이산형 헤저드 모형의 추정에 포함될 시간더미는 총 10개로 구성했다(1-2년, 3-4년, 5-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4년이상).

[그림 2] 첫직업 헤저드 확률 그래프



<표 2> 첫 직업에 대한 생명표

연수	구간	구간진입자	퇴직자	생존확률	헤저드확률
0	0 1	3469	179	0.9484	0.0516
1	1 2	3290	482	0.8095	0.1465
2	2 3	2808	462	0.6763	0.1645
3	3 4	2346	350	0.5754	0.1492
4	4 5	1996	263	0.4996	0.1318
5	5 6	1733	237	0.4312	0.1368
6	6 7	1496	181	0.3791	0.1210
7	7 8	1315	141	0.3384	0.1072
8	8 9	1174	131	0.3007	0.1116
9	9 10	1043	89	0.2750	0.0853
10	10 11	954	136	0.2358	0.1426
11	11 12	818	77	0.2136	0.0941
12	12 13	741	72	0.1929	0.0972
13	13 14	669	54	0.1773	0.0807
14	14 15	615	41	0.1655	0.0667
15	15 16	574	61	0.1479	0.1063
16	16 17	513	43	0.1355	0.0838
17	17 18	470	33	0.1260	0.0702
18	18 19	437	44	0.1133	0.1007
19	19 20	393	24	0.1064	0.0611
20	20 21	369	62	0.0885	0.1680
21	21 22	307	22	0.0822	0.0717
22	22 23	285	24	0.0752	0.0842
23	23 24	261	12	0.0718	0.0460
24	24 25	249	14	0.0677	0.0562
25	25 26	235	22	0.0614	0.0936
26	26 27	213	19	0.0559	0.0892
27	27 28	194	8	0.0536	0.0412
28	28 29	186	16	0.0490	0.0860
29	29 30	170	12	0.0455	0.0706
30	30 31	158	19	0.0401	0.1203
31	31 32	139	11	0.0369	0.0791
32	32 33	128	15	0.0326	0.1172
33	33 34	113	11	0.0294	0.0973
34	34 35	102	17	0.0245	0.1667
35	35 36	85	11	0.0213	0.1294
36	36 37	74	6	0.0196	0.0811
37	37 38	68	7	0.0176	0.1029
38	38 39	61	7	0.0156	0.1148
39	39 40	54	8	0.0133	0.1481
40	40 41	46	7	0.0112	0.1522
41	41 42	39	4	0.0101	0.1026
42	42 43	35	5	0.0086	0.1429
43	43 44	30	4	0.0075	0.1333
45	45 46	26	3	0.0066	0.1154
46	46 47	23	1	0.0063	0.0435
47	47 48	22	3	0.0055	0.1364
48	48 49	19	2	0.0049	0.1053
49	49 50	17	4	0.0037	0.2353
50	50 51	13	2	0.0032	0.1538
53	53 54	11	2	0.0026	0.1818
54	54 55	9	3	0.0017	0.3333
55	55 56	6	1	0.0014	0.1667
57	57 58	5	1	0.0012	0.2000
58	58 59	4	1	0.0009	0.2500
59	59 60	3	2	0.0003	0.6667
61	61 62	1	1	0.0000	1.0000

1. 첫 번째 직업계층에 대한 아버지 직업계층의 영향

<표 3>는 첫 번째 직업계층에 대한 아버지 직업계층의 영향에 대한 이산형 헤저드 모형의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아들의 직업계층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을 고려 위해서 더미변수를 만들어 모형에 포함시켰다.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 일치 여부로 우선 분류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직업계층을 기준으로 각각의 아버지 직업계층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이 일치하는 집단과 불일치하는 집단,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직업계층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상정한 직업계층범주는 7개로 자본가, 전문경영, 준전문가, 도시뿌띠, 산업노동자, 농촌뿌띠, 농촌노동자이지만 아버지 계층과 일치하는 자본가와 농촌노동자의 표본수가 모형을 분석하기에 너무 적고 농촌노동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직업계층으로는 유용하지만 현재의 직업계층으로는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에 5개의 직업계층(전문경영, 준전문가, 도시뿌띠, 산업노동, 농촌뿌띠)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소득과 학력은 직업계층을 통제하는 변수로서 기능한다. 소득은 직업계층의 유지와 상관이 높으며 교육은 직업계층 획득의 중요한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학력을 통해 획득하게 되고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직업적 지위나 계층적 위치를 얻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윤인진외, 2007; 장상수, 2001; 방하남·김기현, 2001)있기 때문에 직업계층이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표 3> 아버지의 직업계층의 효과 분석결과

	전문경영	준전문가	도시뿌띠	산업노동	농촌뿌띠	전체
D1	-1.538***	-1.544***	-1.550***	-1.544***	-1.174***	-1.461***
D2	-1.308***	-1.314***	-1.318***	-1.313***	-.928***	-1.226***
D3	-1.509***	-1.595***	-1.597***	-1.595***	-1.194***	-1.505***
D4	-1.692***	-1.696***	-1.699***	-1.697***	-1.289***	-1.604***
D5	-1.988***	-1.992***	-1.994***	-1.994***	-1.578***	-1.897***
D6	-1.994***	-1.998***	-1.999***	-1.999***	-1.579***	-1.901***
D7	-2.329***	-2.332***	-2.333***	-2.334***	-1.911***	-2.234***
D8	-1.805***	-1.810***	-1.809***	-1.811***	-1.380***	-1.708***
D9	-2.272***	-2.277***	-2.277***	-2.278***	-1.838***	-2.174***
D10	-2.686***	-2.693***	-2.691***	-2.693***	-2.108***	-2.518***
월소득	-.0042***	-.0041***	-.0041***	-.0042***	-.0043***	-.0041***
교육	-.017***	-.017***	-.017***	-.016***	-.024***	-.017***
일치직업계층	-.068	-.069	-.668**	.088	-2.209***	
불일치직업계층	.322**	.206*	.200***	-.061	-.430***	
동일직업계층						-.741***

주: 아버지계층의 직업계층 기준; 기간은 dur1(1-2년), dur2(3-4년), dur3(5-6년), dur4(7년), dur5(8년), dur6(9년) dur7(10년), dur8(11년), dur9(12년), dur10(14년이상); * p<.05 ** p<.01 *** p<.001.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이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취업기간의 유지기간은 길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족의 지원(support)과 사회적자원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효과는 취업기간 유지에 있어서 모든 직업계층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이 높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취업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전문경영, 준전문가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이 일치하는 경우 취업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정치의 유의도는 낮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계층 외 직업계층에 비해 취업유지기간이 짧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취업기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뿐띠와 농촌뿐띠는 아버지직업계층과 동일한 경우 직업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직업계층이 전통적인 성격이 강한 이유로 아버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노동의 경우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직업계층과 동일한 경우 다른 직업계층과는 달리 직업유지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직업계층과 다른 경우 직업유지기간이 길게 나와 타 직업계층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교육적 경제적 지원이 약하여 작업장환경이 열악한 직업을 얻게 됨으로써 한 직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지 못하여 동일직업계층으로의 잦은 이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2. 계층이동에서 아버지 직업계층이 이동횟수에 미치는 영향

직업계층의 안정성은 기간뿐만 아니라 직업계층이동에서 이동횟수를 보고도 알 수 있다. 직업계층이동의 빈도가 잦다면 직업계층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횟수는 첫 직업에서부터 10차 패널조사 종료시점까지 이동한 총 횟수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예측변수가 이직(turnover)횟수인 경우, 횟수를 나타내는 자료(count data)는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 흔히 이러한 경우에는 포아송회귀(poisson regression)나 부의 이항회귀(negative binomial regression)를 추정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포아송 회귀분석을 추정에 이용하였다.

<표 4> 아버지의 직업계층의 효과 분석결과

	자본가	전문경영	준전문가	도시뿐띠	산업노동	농촌뿐띠
상수	1.320**	1.315**	1.313**	1.315**	1.311**	1.432**
교육	-.010**	-.009**	-.009**	-.010**	-.009**	-.016**
동일직업계층	-1.167*	-.275*	-.195**	-.445**	.166**	-.829**
타직업계층	.058	-.029	.112*	.131**	-.006	-.034*

주) 아버지계층외 직업계층 기준; * p<.05 ** p<.01

<표 4>는 포아송회귀분석 결과이다. 직업계층 유지기간 분석에서 아버지계층의 상속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듯이 이동의 횟수에 있어서도 모든 계층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육의 효과가 대체로 직업계층의 이동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업노동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언급했듯이 학력은 높은 성취동기와 상관이 있고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이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에서 탈출하여 상위의 직업계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포아송회귀 모델에서 모든 계층에 걸쳐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기간과 더불어 이동횟수도 직업계층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가, 전문경영, 준전문가, 도시뿌띠, 농촌뿌띠 등 아버지의 계층을 이어받은 이들이 계층 이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뿌띠(-.448)나 농촌뿌띠(-.829)는 전문경영(-.280)이나 준전문가(-.190)에 비해 취업기간에서와 같이 아버지 직업계층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산업노동의 경우는 아버지의 계층과 일치하는 경우 이동횟수가 많은데 이는 직업계층유지기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산업노동은 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보다 나은 작업장 조건을 찾아서 잦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동횟수를 예측변수로 놓고 포아송회귀분석을 하거나 취업기간을 예측변수로 놓고 이산형 헤저드 분석을 하나 그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일치하는 이들은 계층이동이 적으며 계층유지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어 설정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사회계층에 관련한 직업 연구들은 대부분 첫 직업계층을 얻기까지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이후에 직업을 얻고 난 이후 직업이동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첫 직업계층을 얻고 난 후의 아버지의 직업계층(귀속지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아들의 직업계층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 그리고 아버지 직업계층과 다른 경우로 나누어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직업계층의 안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첫 직업을 얻고 난 후 퇴직까지의 유지기간과 직업이동에서 이동횟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직업계층을 산업, 종사상, 직업을 결합하여 ‘자본가’, ‘전문경영’, ‘준전문가’, ‘도시뿌띠’, ‘산업노동자’, ‘농촌뿌띠’, ‘농업노동자’의 5개 직업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 상속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으로서 이산형 헤저드 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계층이 일치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는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동일한 경우 첫 직업계층 유지기간은 길고 이동횟수는 적게 나타났다. 계층

별로 도시뿐때와 농촌뿐때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경영, 준전문가 계층에 비해 그 효과가 컸다. 대조적으로 산업노동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계층을 상속하는 경우 직업계층 유지기간이 짧으며 이동횟수도 많았다.

본 연구는 계층 간의 이동효과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생애과정의 역동성을 단순화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일반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외에 세부적으로 노동패널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10차까지 조사된 노동패널자료는 초기보다 결측자료가 많아졌으며 특히 직업력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의 경우 많은 사례가 결측처리되어 계층변수 생성 후 가용 데이터 손실이 컸다. 분석과정에서도 변수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갖게 된다. 직업계층 이동횟수 분석에서 이직을 기준했는데 이때 직업계층 안에서 이동했을 경우 계층이동으로 정의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직업계층 안에서 이동도 이동이 잦다면 계층 안정성 해석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직업계층이동을 계층 내 이동과 계층 외 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적절한 분석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노동자의 경우 이직횟수가 많은데 계층이동의 방향을 알아야 산업노동자가 상승 이동하는 자와 수평 이동하는 자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수평이동비율과 상승이동비율의 차로서 사회불평등 경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설로 설정하였던 세대내 이동의 방향은 추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분석에서는 계층이동의 방향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비록 흡족하지는 않은 연구이지만 보완을 통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계층 영향이 자녀의 계층이동 궤적을 변화시키는지와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환·최바울, 2003,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문
- 김주일, 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저널, 2권 1호 pp.57-76
- 김준영·전용석, 2003, 청년층 취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이동성과,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문
- 남재량·김태기, 2001,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4권 1호 pp.81-106
- 방하남·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 안주엽·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pp.47-74
- 양심영, 2000, 고졸 청년층의 취업형태와 전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 윤인진외, 2007, 자녀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3호 pp. 167-192.
-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1호 pp.1-18
- 이병희, 2001,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 한국노동연구원
- 장상수, 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3).
- 장상수,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 출판부.
- 차종천, 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 정성미, 2007, 정규직의 사각지대, 노동리뷰 26호.
- 정이환, 2006, 동아시아의 노사관계와 임금불평등, 한국사회학 40(2): 71-105.
- 최경수, 1999, 청년층 직장정착과정 연구를 위한 회고적 패널의 구축, 제1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 한준·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제1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노동연구원

- Blau, P. M. & O.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 Bowles, S. & H. Gintis.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 Curtis, R. F. 1986, "Household and Family in Theory on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 Davis, K. & W. E. Moore, 1945,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April): 242-249.
- Edwards, R. C., 1976, Individual Traits and Organizational Incentiv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1.
- Ellwood, D.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s or Temporary Blemishes." in Erikson, R. & J. H. Goldthorpe. 1993,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atherman, David L., and Robert M. Hauser. *Opportunity and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 Goldman, Robert & Ann Tickamyer. 1984, "Status Attainment and the Commodity Form: Stratific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
- Gottschalk, P., S. McLanahan, & G. D. Sandefur, 1994, *The Dynamics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and Welfare Participation*," in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sky, D. B. & R. M. Hauser. 1984, "Comparative Social Mobility Revisited: Model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16 Countries,"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
- Hallinan, M. T. 1988, *The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 New Conceptualizations of the Learning Process*, New York : Plenum Press.
- Hauser, R. M., J. Sheridan, & J. R. Warren, 1998, "Socioeconomic Achievement of Siblings in the Life Course: New Findings from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Working Paper no.98-02.
- Jencks, C., S. Bartlett, M. Corcoran, J. Crouse, D. Eaglesfield, G. Jackson, K. McClelland, P. Mueser, M. Olneck, J. Swartz & J. Williams. 1979, *Who Gets Ahead? The Determinant of Economic Success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
- Kerbo, H. R. 1983,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New York: McGraw-Hill.
- Lenski, Gerhard. 1966,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 Lipset, S. M. & H. L. Zetterberg, 1966, "A Theory of Social Mobility" in Bendix & Lipset (eds.). *Class, Status and Power*, New York: Free Press.
- Lipset, S. M. & R. Bendix, 1967,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London: MacGibbon & Kee.
- Pastore, J. *Inequality and Social Mobility in Brazil*. trans; R.M. Oxley.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 Schultz, T. W. 197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New York: The Free Press.
- Smith, T. E. & P. B. Graham. 1995,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in Family Research," 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 Sorokin, Pitirim A.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The Free Press of Glencoe, 1959.